



6월 20일 (화) / 미얀마

작년에 신앙 때문에 집이나 나라에서 쫓겨난 기독교인의 거의 80%가 미얀마 출신이었습니다(110,000명). 많은 사람들이 숲과 정글에서 살아야 합니다. 실향민 각자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임재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6월 21일 (수) / 나이지리아

2022년에 약 10,000명의 기독교인이 나이지리아에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올해 초, 아부자(Abuja) 당국이 아무런 경고 없이 임시 대피소를 철거한 후 최소 80명의 신자가 궁핍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모든 실향민 기독교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제공되도록 기도합니다.

6월 22일 (목) / 중국

위험과 제한에도 불구하고 오픈도어는 은신처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네트워크가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준비되도록 기도합니다.

6월 23일 (금) / 중앙아시아

미흐랍은 이전에 심문을 받을 때 겪었던 끔찍한 대우 때문에 경찰 소환장에 불출석하자 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 이후로 그 나라를 떠났고 그는 스트레스로 인해 아내 하디자가 유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족들이 치유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되도록 기도합니다.

6월 24일 (토) / 중앙아시아

2022년에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는 매주 약 7,000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에게 음식, 담요, 신발, 의약품을 포함한 구호품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세 개의 담수 우물 건설을 도왔습니다. 세계 교회가 보여주는 이 사랑이 예수님을 모르는 현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기도합니다(요 13:35).

6월 25일 (일) / 중국

올해 몇 년 동안 투옥된 후 소수의 기독교인이 석방되었지만 여전히 면밀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옥 밖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때 그들을 보호하고 도우시도록 주님께 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고 강화되도록 기도합니다.

6월 26일 (월) / 네팔

기독교인들은 힌두교 활동가들의 적대감이 점증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두 명의 신자가 거리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6시간 동안 구금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두 명의 기독교인이 구경하는 군중 앞에서 성경을 불태우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적대감 가운데서도 신자들이 담대하게 되도록 주님께 기도합니다.

6월 27일 (화) / 방글라데시

사비나는 영향력 있는 지역 남성이 그녀의 문해력 수업 중 하나를 방해하며 그녀가 기독교를 가르치는 데 수업을 사용한다며 그녀를 위협한 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수업에 참석하기를 두려워해 사비나는 학생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은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업이 계속되길 기도합니다.



6월 28일 (수) / 인도네시아

기독교인이 된 후 수베타*의 변화는 그의 친구들을 놀라게 했지만 그의 가족은 그가 집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력거를 타고 생활하지만 만족합니다. “저는 여기 앉아서 성경이나 다른 제자도 책을 읽으면서 승객을 기다립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수베타의 인력거 운전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도록 기도합니다.

6월 29일 (목) / 스리랑카

2022년 3월, 인두닐 목사*의 교회는 불교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왔고, 믿음과 기도가 증가했으며, 신자들이 용서하기 위해 손을 내밀면서 반대가 누그러졌습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과하고 깨진 우정을 화해하려고 왔습니다.”라며 인두닐 목사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화해의 소식들이 스리랑카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월 30일 (금) / 베트남

중부 고지대에서는 미국 영사관 직원 두 명이 박해 보고를 조사하기 위해 교회와 신자들을 방문하는 것을 경찰을 포함한 현지인들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신자들이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지방 당국이 교회 운영을 허용하도록 기도합니다.

- 기도월력을 신청하세요! 기도회에서 나누실 수 있도록 원하시는 부수대로 보내드립니다.
- 오픈도어유클리(Open Doors Weekly)를 신청하세요! 소식과 기도제목을 매주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다양한 기도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휴대폰: 010-7548-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 고린도전서 12장 27절 -



Open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6월 1일 (목) / 튀르키예

종교적 민족주의가 매우 강력한 튀르키예의 핍박 받는 기독교 개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가족의 감시와 위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도록, 정부가 기독교인을 차별없이 무슬림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월 2일 (금) / 부르키나파소

부르키나파소는 2014년 이후 3번의 군사 쿠데타를 겪었습니다. 국가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지하드 단체, 소수 민족 민병대, 보안군 사이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안정을 가져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부에 지혜를 주시고 정부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며 노동과 삶의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기도합니다.

6월 3일 (토) / 부르키나파소

오픈도어는 최근 부르키나파소의 신자들에게 트라우마 치료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트라우마 상담사 티르함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간단히 말할 수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짐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웃기 시작했고 잠을 더 편안하게 자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며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6월 4일 (일) / 부르키나파소

하비바*는 13세 때 지하디스트에게 납치되어 강제로 결혼했습니다. 3년 후 그녀는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비바와 그녀의 가족에게 트라우마 상담을 제공하는 오픈도어 파트너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6월 5일 (월) / 무슬림 국가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 신앙을 포기하라는 큰 압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버림받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며 그들이 교회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도록 기도합니다.

6월 6일 (화) / 카메룬

카메룬은 이슬람 극단주의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무슬림 지역입니다. 오픈도어는 그곳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긴급지원, 외상 치료, 경제적 권한 부여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격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위로와 희망을 부여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을 섬기는 교회 지도자들과 파트너들이 그들과 사역하면서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월 7일 (수) / 카메룬

카메룬에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에게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케메룬의 정부와 보안군이 국가의 안보를 잘 지키도록 기도합니다. 공격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희망을 부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6월 8일 (목) / 카메룬

정부는 국가의 불법과 종교의 자유 제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기독교인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 영역에서 계속 활동하고 카메룬 사람들을 위해 옳은 일을 하도록 기도합니다.

6월 9일 (금) / 카메룬

보코하람은 최북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회 활동이 방해받거나 지장을 받고 기독교 여성들은 납치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직면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함께 만나 강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회복을 유지해 나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월10일 (토) / 니제르

니제르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가족과 사회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됩니다. 믿음을 부인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합

니다. 그리고 다른 신자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갖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월 11일 (일) / 니제르

사라투*(18세)는 마을에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기 위해 기독교인 가족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무슬림과 결혼하지 않으면 그녀를 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사라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녀의 가족이 마음을 바꾸고 회심하고 학교에 잘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월 12일 (월) / 콩고

2014년부터 연합민주군(ADF)은 동부에서 잔인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6월 13일 (화) / 콩고

진(Jean) 목사는 그의 교회가 ADF 무장세력에 의해 폭격을 받아 15명이 사망한 후 정신적 외상을 입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오픈도어 파트너를 통해 교회를 이전하는 데 도움을 받은 후 희망을 찾고 다시 회중을 인도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제 제 위로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 목사님이 용기를 갖도록 기도합니다.

6월 14일 (수) / 말리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지도부의 공백이 생겨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영토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일부 지역에서 폭력의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도록 기도합니다.

6월 15일 (목) / 말리

말리에는 적지만 적극적인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가운데 회중을 섬기고 인도할 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월 16일 (금) / 미얀마

미얀마의 오랜 내전을 악화시킨 군부 쿠데타 이후 2년이 넘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일어난 영향은 재앙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반대편 군부에 의해서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으로 트라우마가 된 성도들이 치유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기도합니다 (벧전 2:12).

6월 17일 (토) / 미얀마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기독교인이 다수인 지역을 포함해 37개 마을에 계엄령이 내려졌고 국가의 비상사태가 6개월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을 더 큰 위험과 공격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용기를 얻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월 18일 (일) / 미얀마

오픈도어 파트너는 기독교인을 위한 박해 생존 훈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자는 어려움 때문에 거의 믿음을 잃을 뻔했지만 훈련을 통해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역을 통하여 신자들이 새롭게 되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월 19일 (월) / 난민을 위한 기도

난민 주간이 오늘 시작되며 올해의 주제는 연민입니다. 작년에 적어도 140,000명의 기독교인이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고향이나 국가를 떠났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신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그들에게 '가없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0:34).